

소프트웨어의 標準化

工產品의 경우 제품의 표준화·규격화는 물론 생산공정의 표준화 등은 생산성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에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言語인 코볼(COBOL)이나 포트란(FORTRAN),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하나인 유닉스(UNIX) 등은 대표적인 표준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다.

위에서말한 표준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를 써서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를 생산할 때 어느정도 표준화가 도입되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전문요원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고 기술마저 부족하여 「모로가도 서울만가면 된다」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후 컴퓨터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시스템및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자 개발참여요원이 많아지게 됐고 몇몇사람의 손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것이 어렵게됐다.

이제는 시스템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설계·프로그램작성·데이터작성·도큐멘테이션·운용에 이르기까지 업무가 分化, 각 업무마다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진흥
한국증권 전산상무이사



일부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글을 쓰는 것과 같아서 創意性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업무를 너무 規格化하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는 점차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제고, 운용효율 및 보수·유지상의 편의, 시스템 사회성확보, 시스템관리 비용의절감을 비롯, 프로그램 에러(Error)의 신속한 파악 등을 위해 표준화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良質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용하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도입이 빠를수록 좋다고 하겠다.